

# 사랑의열매

ISSUE **146**  
2019 JUNE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엔젤맘 현영의 착한가정 스토리

꿈을 이루어주는 언니에서  
이젠 두 아이 엄마가 되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공동모금회 총회 참석한 예종석 회장

사랑의열매, 동북아시아 허브로  
지원 아끼지 않겠다

## “기억하고, 감사하는 6월”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독립을 위해 애쓴 순국선열, 6·25전쟁에 참전한 호국 영령들의 희생 덕분이 아닐까요.  
이번 호 특집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과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6월 한 달만이라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 사랑의열매 공식 SNS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http://blog.naver.com/nanum_in)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aiaw0g](http://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aiaw0g)



#품절대란 #인싸템 #안테나핀 #아광하트인경  
#바람개비 #즐귀탕 #대가대 #대가대축제  
#사랑의열매

2019. 05. 14~05.16 사랑의 열매 4년 차  
마지막 축제를 사랑의 열매로 끝내기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 덕에 즐겁게  
축제를 마무리



더웠던 지난 주말의 #유기견보호소  
① 점핑점핑 강취는 좋은 주인을 만나 이날 입양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② 늘 반기는 오늘을  
이번엔 못 봤네 ③ 시설 보수가 아직도 많이 필요한  
마석보호소

#유기견 #유기견봉사 #강아지 #주말봉사  
#직장인봉사 #봉사 #남양주 #꽃가루와 털이  
날리던 날. 근데 아직 난 큰 도움은 안 되는 듯. 일을  
좀더 잘하고 싶다면.



#나눔스타그램 독거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도배  
장판 교체 나눔 활동  
#나눔 #성남 #수정구노인복지회관  
#동탄 #동탄남편  
#오산 #화성 #수원 #용인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반찬 요리 배식 봉사 및  
청소를 했습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고 90여 명에게  
배식을 하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일상 #봉사활동 #봉사 #월요일 #반찬배식  
#복지관 #요리 #반찬 #맛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모금  
오늘 아침 행거 간 사랑의열매  
장애인복지관에 현장 학습을 간 시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시유가 매일 잘 모아서  
오늘 기분 좋게 등원  
우리 시유가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잘 돌아보며 성장하기를 염하는 응원해! 기도해!

#장애인복지관 #사랑의열매 #7세 #딸  
#민음반 #김시유 #오늘도 #훗팅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 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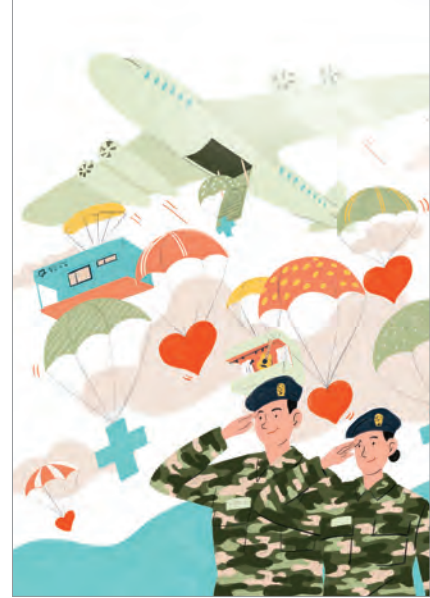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CONTENTS



충성! 사랑의열매가  
국군 장병을 응원합니다

- 05 읽고, 보고, 듣고... 문화생활을 즐기다
- 06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 08 꾸준히 기부하는 제31사단 주임원사 서호석 원사
- 09 병사 월급을 모아 기부한 제28사단 안정근 상병



## 사랑의열매

vol. 146 2019 / 06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6월 / 통권 14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경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10 커버스토리

엔젤맘 현영의 '착한가정' 스토리

### 14 이슈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공동모금회 총회  
"사랑의열매, 동북아시아 허브로 지원 아끼지 않겠다"

### 18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야너 소사이어티 그린랜드 배건조 대표





## 22 특별대담

예종석 회장이 만난 미주 동포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리더  
김동구 비피인더스트리 회장

## 24 나눔리더

인천 나눔리더 119호 가입한 인천부평소방서 양승용 소방위

## 26 착한기업

이웃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하는 애경산업

## 30 땡큐 사랑의열매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힘 얻었어요"

## 34 나의 '첫'사랑

착한 타이밍을 잡아라!

## 36 장석주의 독서 처방전

자연이 주는 기쁨이 필요한 당신에게

## 38 '먹을 수 있어 좋구나'

맛과 향으로 사람을 홀리는 매실과 꽃게

## 40 힐링 타임

일상에 좋은 향기가 필요한 순간

## 44 전국 뉴스

중앙회,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 5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56 독자 페이지



# 충성! 사랑의열매가 국군 장병을 응원합니다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고  
현충일이 있는 6월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호국보훈의 달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랑의열매에서는 국군 장병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읽고, 보고, 듣고... 문화생활을 즐기다

사랑의열매는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해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즐거움이 가득한 다양한 문화공연 2019 군인의 품격

‘군인의 품격’은 국방부와 현대자동차그룹, 한국메세나협회, 사랑의열매가 협업해 펼치는 군 맞춤형 문화 공연이다. 2012년부터 벌써 8년째 육·해·공군 및 해병대 114개 부대, 7만2,000여 명의 군 장병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도 약 14개 부대 8,000여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창작 뮤지컬, 토크 콘서트(인디 밴드 포함) 등 총 14회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작 뮤지컬을 새롭게 시도한다. 한 장병이 군 생활을 하며 스스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려 장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외에도 토크 콘서트에서는 인기 연사들이 취업과 진로를 주제로 강연해 장병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1 '2019 군인의 품격'은 지난 5월 16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열린다.
- 2 컨테이너형 건물이지만 내부는 넓고 쾌적한 '청춘책방'
- 3 '청춘책방'은 이용하는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다.



## 책 읽으며 꿈 키우는 '청춘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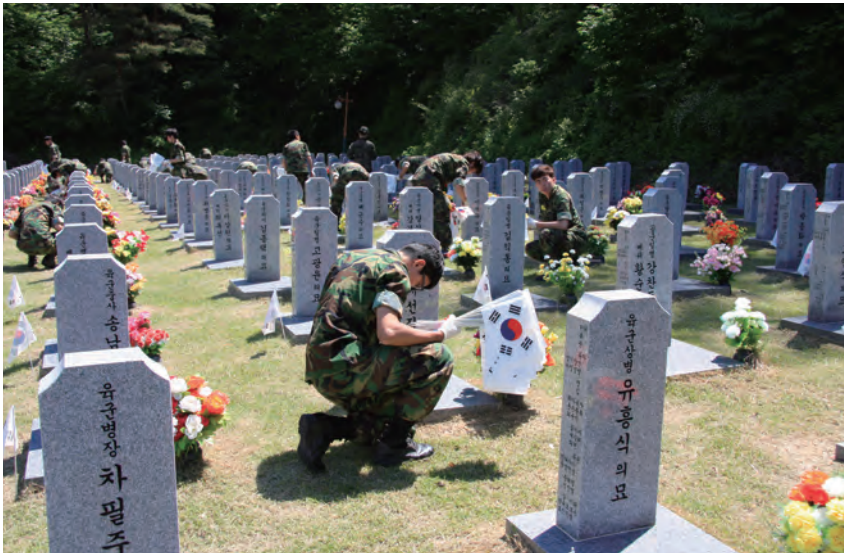
‘청춘책방’은 최전방 일반전초(GOP), 해안 소초 등 열악한 여건에서 복무해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장병에게 컨테이너형 현장 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롯데그룹과 사랑의열매, 구세군자선냄비본부가 협업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5호점까지 문을 열었다. 이 덕분에 장병들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청춘책방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독서실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자기 계발을 위한 공부도 할 수 있다. 올해 문을 열 11곳의 청춘책방에는 e-book 공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지난해 4월 충남 사랑의열매는 육군본부와 협약을 맺고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을 조성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 고양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육군은 물론 기업과 일반 국민까지 뜨거운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꽃기' 행사에 참여한 군인들

### 1년 동안 모인 뜨거운 전우애

육군은 국가에 헌신·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예우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이하 전우사랑 기금)은 그 고민의 산물이다. 모금이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지난해 4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전우사랑 기금에는 지금까지 약 17억 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었다. 또한 500여 명의 참여로 시작해서 현재는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장병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동참하는 등 육군 내부에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기금으로 육군 복무 기간 동안 작전이나 훈련 중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국가적

보상 이외에 육군 자체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추모 사업 등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기금이 안정화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향으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 문화에 동참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장병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 예물과 예단 비용을 아껴 200만 원을 기부한 '군인 부부' 이재우·이주은 대

위, 근속 30년을 맞아 육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50만 원을 기부한 양영주 원사, 가족들과 상의해 아들 첫 돌 때부터 모은 100만 원을 기금에 전달한 이동기 대위 등은 개인적인 기념일에 기부하며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헬기 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한 전우를 추모하며 기부하거나



2018년 4월 육군본부와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협약식을 맺은 충남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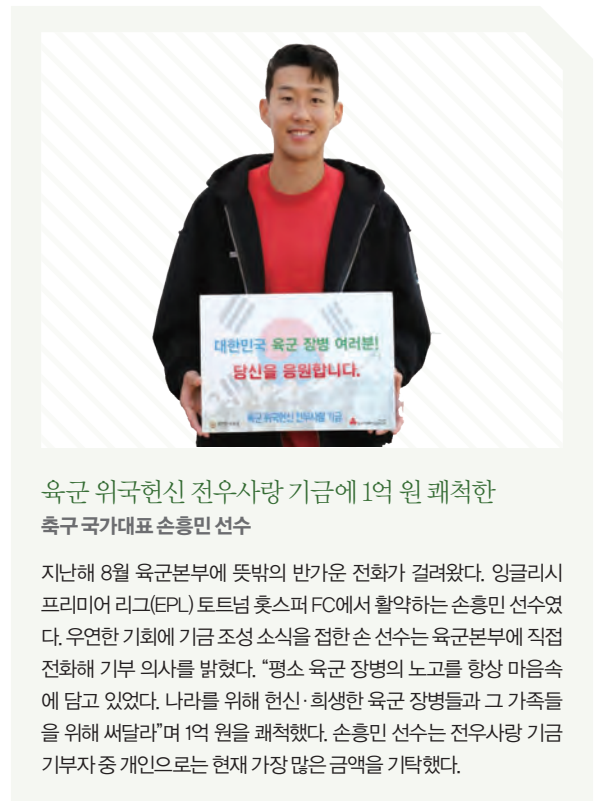


얼마 되지 않는 병사 월급을 틈틈이 모아 기금에 기꺼이 헌납한 병사 등 다양한 사연과 함께 기부금이 적립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기업 최초로 5년 동안 매년 1억 원 기부 약정을 맺은 (주)더존ICT그룹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이 위문금 기부에 이어 기금에 추가로 기부하는 한편, 육군을 위한 아낌없는 위문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 (주)프런티어코가 1,000만 원씩 5년 기부 약정을 맺었고, 삼구INC도 5년 동안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으며, (주)풍산에서 3억 원을 전달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보내오는 정성도 대단하다. 현재 명예 15사 단장직을 맡고 있는 (주)듀오 이충희 회장은 흔쾌히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기금을 소개하며 여러 명의 기부자를 연결해주는 등 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다.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동부전선 끝에서 서부전선 끝까지 모든 GOP 장병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고 받은 수강료 400여만 원 전액을 기금에 전달했고, 충남 사랑의열매 이관형 회장도 사재 2,000만 원을 육군에 전달했다.

###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전달에 최선을

육군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귀한 기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의지로 수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혜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투명한 기금 집행 방안 등을 명문화해 공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 1월 1일 이후 작전 및 교육 훈련 관련 전사·순직·부상 장병 및 군무원 중에서 집행 대상자가 생기면 육군본부에서 민간 위원을 포함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유형별로 구분해 금전적 지원과 함께 유자녀 장학금 지원, 추모 사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전달되는 국가적 보상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관련법을 제정해 증액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육군 전우사랑 기금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충분히 보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에 1억 원 쾌척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

지난해 8월 육군본부에 뜻밖의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FC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였다. 우연한 기회에 기금 조성 소식을 접한 손흥민 선수는 육군본부에 직접 전화해 기부 의사를 밝혔다. "평소 육군 장병의 노고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한 육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쾌척했다. 손흥민 선수는 전우사랑 기금 기부자 중 개인으로는 현재 가장 많은 금액을 기탁했다.

###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기금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간부 및 군무원은 국방급여포탈에서 우수리 공제 또는 1000원 단위 희망 송금을 신청하면 되고 병사는 지정기탁 신청서를 작성해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민간단체 또는 개인 기부자는 육군 본부 또는 충남 사랑의열매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기금 계좌(농협 301-8866-9966-01)로 입금 전·후에 들중한 곳에 연락하면 된다. 또한 ARS나 전우사랑 패밀리 삼성카드로도 참여할 수 있다.**  
**ARS 참여** 060-700-0884(1만원), 060-700-0885(5천원), 060-700-0886(1천원)  
**문의** 충남 사랑의열매(041-635-0340), 육군본부(042-550-7391, 7371)

우수 상금 등 꾸준히 기부하는 제31사단 주임원사 서호석 원사

“전우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제31보병사단 장병 일동'의 이름으로 기금에 전달했다. (가운데가 서호석 원사)

지난해 10월 제1회 육군참모총장배 드론봇 전투 경연대회가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렸다. 서호석 원사는 다른 장병들과 함께 31사단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우수 상금으로 130만 원을 받은 6명의 드론 팀은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심했다.

“사단을 대표해 받은 상금인 만큼 사단의 명예를 높이고, 의미 있는 일을 돕는 데 쓰고 싶습니다. 팀원들과 의논한 끝에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이하 전우사랑 기금)에 기탁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단장님께 이 뜻을 전했다, 승인해주셔서 기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많은 장병이 좋은 일에 동참하길

지난 3월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열린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31사단 장병 629명이 참가했다. 마라톤에 참가한 군 간부들은 땀 거리만큼 일정 금액을, 광주은행에서 완

주한 병사1인당 1만 원을 지원해 ‘제31보병사단 장병 일동’의 이름으로 전우사랑 기금에 기부했다. 서호석 원사는 전우사랑 기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제가 받는 봉급은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좋은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육군본부의 홍보를 통해 전우사랑 기금을 알게 된 지난해 7월부터 매달 봉급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연한 기회에 군대에서 사고로 신체장애를 갖게 된 장병을 만난 서 원사는 전우사랑 기금이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기금 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전쟁이 나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 전우입니다. 전쟁은 상황은 아니지만, 군을 위해 작전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전우사랑 기금입니다. 많은 장병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언행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전우’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서호석 원사의 진심이 느껴졌다.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서호석 원사와 그의 아내 정화영 씨



병사 월급 모아 아버지 기일에 기부한 제28사단 안정근 상병

##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는 ‘진짜’ 전우입니다”

안정근 상병은 지난 2월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이하 전우사랑 기금)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 그 돈은 입대하면서 가입한 적금 중 하나로 병사 월급을 알뜰살뜰 모은 것이다. 안 상병은 아버지 기일에 맞춰 기부금을 전달하고 싶어 적금을 해약했다.

“아버지께서는 없는 형편에도 항상 이웃을 돕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기일에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실만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안정근 상병은 올해 12월에 전역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신랑이다. 그는 예비 신부이자 여자친구의 응원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할 수 있었다며 지면을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 신성한 국방의 의무, 작은 위안이 되길

“사단 정훈병이지만 영상을 제작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가 아니라 장병들의 교육과 멘토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병사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을 뒤로 하고 입대해 걱정이 많은 병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안 상병은 조국과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전우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차마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전우사랑 기금을 떠올렸다. 그는 100만원을 기부한 것은 물론 부대에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덕분에 그가 있는 광명대대에는 기금을 낸 장병들이 유독 많다.

“저는 장병들에게 기금을 알리며 우리가 진짜 전우라면 서로를 지켜주는 일에 함께 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나눔 활동을 처음 해본다며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전우사랑 기금은 아주 적은 금액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처럼 기부가 낯선 병사들이 기부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근 상병은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잘 알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우사랑 기금 홍보대사를 자처한다. 또한 앞으로도 쪽 나누는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생각이다. ❀



신병수료식에서 훈련동기들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안정근 상병 (맨 앞)



## 엔젤맘 현영의 착한가정 스토리

# “꿈을 이루어주는 언니에서 이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사랑의열매와 14년 전 봉사로 인연을 맺은 연예인 대표 기부 천사 현영.

올해로 아너 소사이터티 가입 10주년을 맞이한 현영은 ‘착한가정’에 가입하며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 새로운 봉사 여정을 시작한다. 엔젤맘을 꿈꾸는 그녀의 착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따스한 어느 봄날, 화사한 햇살만큼이나 밝게 빛나던 현영과 그녀의 사랑스러운 남매 최다운 양(8)과 최태혁 군(2)을 만났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촬영장에 들어서는 다운이와 태혁이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운이는 부쩍 자기 고집이 생겼어요. 큰소리 한 번 낼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다들 이 시기를 팔춘기라고 하더라고요.(웃음) 태혁이는 한창 예쁜 짓을 할 때라 너무 귀엽고요.”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완벽한 미모를 자랑하는 현영이지만,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환하게 웃는 그녀는 누가 뭐래도 엄마였다. 데뷔 초기 미혼 시절부터 오랫동안 나눔과 봉사 활동을 해온 현영이지만, 엄마가 된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전에는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조금은 광범위하게 도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되니까 확실히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요. 아이를 낳아보니 아이는 너무 작고 약한 존재더라고요. 보살

피주고 다듬어준다면 뭐든지 될 수 있는데... 뉴스를 봐도 아이들 소식부터 눈이 가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울분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현영은 아이들의 꿈과 행복에 특히 관심이 많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꿈을 꾸길 바라고, 그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다고면서 언젠가 한 아이의 꿈을 이루어준 이야기를 특유의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 산골소녀의 꿈을 이뤄준 기쁨과 보람

십수 년 전, 현영은 행사차 방문하게 된 서울 강남구청에서 우연히 독후감 대회에서 1등을 한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산골 아이가 쓴 글이었어요. 자기 집에 닭이 한 마리 있는데... 자기 집 식구는 4명인 거예요. 닭이 달걀을 4개 낳으면 식구 수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닭이 2개나 3개를 낳으면 누군 먹고, 누군 못 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닭이 매일 달걀을 4개씩 낳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쓴 거예요. 내용도 예쁘고, 글을 쓴 아이의 마음도 너무 예뻐서 그 순간 이 아이의 꿈은 될

“저에게 나눔이란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건네는  
인사말이에요.”



아들 태혁 군도 함께한 자리에서 착한가정에 가입해 더욱 뜻깊다고.

“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웃 돕기의 베테랑 현영의 이야기는 과거나 현재나 남달랐다. 현영은 수소문한 끝에 그 글의 주인공을 찾아 직접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작은 산골 학교에 다니던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국을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게 꿈”이라고 답했고, 현영은 그 꿈을 이루어 줬다. 사비를 털어 반 친구들과 함께 외국 견학을 보내준 것. 아이들이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현영에게 보낸 엽서에 적힌 말들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현영의 눈망울이 벅찬 기억들로 예쁘게 글썽인다.  
 “그 아이는 뭐가 되어도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꿈을 이뤄

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때 저도 쉽지 않은 연예계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었어요. 그 학교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SNS 메시지로 그때 외국 견학 갔다 온 학생이라며 인사도 보냈더라고요.”

현영은 인생을 소설책에 비유하며 당시의 일화를 가장 좋아하는 페이지라고 했다.

### 걸스카우트부터 연예계 기부천사까지

올해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10주년을 맞는 현영은 사랑의열매와의 인연도 14년이 됐다. 데뷔 초기부터 꾸준히 나눔과 봉사 활동을 이어온 연예계 대표 기부 천사이다. 그 시작과 계기가 궁금했다.

“사랑의열매와의 인연은 같이 방송하던 김용만 선배의 추천으로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수소문해서 고아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기관을 직접 찾아갔거든요. 사랑의열매를 만나니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스케일도 커지고요.(웃음) 그 이후 적극적으로 활동했죠.”

봉사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현영은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걸스카우트 활동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현영은 걸스카우트를 시작으로 중학교 때는 누리단에 가입해 봉사 활동을 했다. 당시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이 많았다고.

“봉사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부든 봉사든 하고 난 다음의 기분 있잖아요. 어렸지만 고아원 친구들과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도 느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도 생기고, 도움이 되었다면

뿌듯함도 느끼고요. 불가능할 것 같던 연예인이라  
란 꿈을 이루고는 늘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고  
마음을 전할까 하고 말이에요.”

연예인이라 꿈을 이루고, “예쁘다”, “고맙다” 하  
는 말을 들으며 돈도 벌게 된 자신은 복받은 사  
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데뷔 초부터 어떻게 하면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했  
다. 현영에게 나눔이란 “고맙습니다”라고 건네  
는 인사말이다.

### 꿈을 이뤄주는 엄마로 아이들과 함께

촬영이 있던 날, 현영은 아이들과 함께 ‘착한가  
정(가족구성원이 2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약정  
한 가정)’에 가입해 보다 뜻깊었다. 이제 초등학  
교에 입학한 다은이는 엄마의 이런 모습이 꽤 익  
숙한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다은이는 걸음  
마를 시작한 순간부터 엄마와 함께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해왔다.

“제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돕고 있어  
요. 다은이가 캠프도 늘 같이 가고, 언니와 오빠  
들이 어색할 법도 한데 자연스럽게 어울려 노래  
도 부르고 잘 놀아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의젓  
하다 싶죠. 사랑의열매에서 열린 송편 만들기 행  
사에도 함께 참여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  
떡도 나눠드렸어요.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  
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 더 큰 집에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현영은 다은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으로 크길 바란다. 세계와 인류를 돕는 직업을  
가지면 더 좋겠다면서 말이다. 너무 말이 거창했  
냐며 쑥스럽게 웃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  
걸스카우트 경험이 오늘의 현영을 만들었듯, 자  
신보다 더 일찍 봉사 경험을 하는 다은이는 더  
큰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한다.

“  
다은이와 태혁이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른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인류와 세계를 돕는 일을 하면서요.  
이런 꿈은 얼마든지  
크게 꾸어도 되겠지요?”

“5월에 현영의 엔젤마켓이 전주에서 있어요. 처  
음엔 기부 요청 차원에서 시작할 마켓인데, 참가  
하는 중소 브랜드들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  
예요. 연예인을 모델로 홍보하는 건 꿈도 못 꾸  
고요. 제가 중간 역할을 맡아 상생의 마켓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니 아주 건강한 또 하나의 나  
눔 롤모델이 되었어요.”

엔젤마켓을 이야기하던 현영은 다시 꿈 이야기  
를 했다. 나눔은 모두의 꿈을 이루어주는 일이라  
면서 말이다. 결혼 전엔 꿈을 이루어주는 언니였  
는데, 이제는 꿈을 이루어주는 엄마가 되었다면  
서, 그 길에 딸 다은이와 아들 태혁이도 함께하길  
바란단다. 엔젤마켓 현영이 만드는 착한가정 안  
에서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한다. ♡



사랑의열매의 봉사에 함께 참여한 현영과 딸 다은 양. 현영은  
딸 다은 양이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봉사 현장에 데려가며  
선한 경험을 쌓아주고 있다. 또한 딸과 함께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공동모금회 총회 참석한 예종석 회장  
“동북아시아 허브로 지원 아끼지 않겠다”

## 글로벌화와 디지털 연결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의 기부 문화

지난 5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공동모금회 커뮤니티 리더십 & 임팩트 컨퍼런스가 열렸다. 전 세계 사회 공헌 분야 주요 인사와 기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기조연설 연사로 연단에 올랐다. 예종석 회장은 ‘떠오르는 아시아 시장과 아태교육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랑의열매와 아태교육센터의 향후 비전을 소개하는 동시에 글로벌화와 디지털 플랫폼 모델의 발전으로 아시아의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강조하고 사랑의열매가 동북아시아 교류의 허브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전 세계 공동모금회의 미래를 논의하다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공동모금회 커뮤니티 리더십 & 임팩트 컨퍼런스(United Way Worldwide Community Leadership and Impact Conference, 이하 총회)가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세계공동모금회(UWW)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연례 회의와 공동모금회(UW: United Way를 편 의상 공동모금회로 번역)의 지역사회 성공 사례 및 업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 세계 공동모금회 1,800여 곳, 국제 네트워크 파트너 국가 리더들, 기업 지도자와 고액 기부자 2,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행사였다. 총회 기간 동안 ‘공유된 목적의 힘: 디지털 시대 사회자본의 구축(The Power of Shared Purpose: Building Social Capital in the Digital Age)’이란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려 명망 있는 인사들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2010년 세계공동모금회와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국제 네트워크 파트너로서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이 기조 연사로 초청받아 연단에 올랐다. 첫 기조연설에 나선 브라이언 갤러거 세계공동모금회 회장은 현대화한 공동모금회 모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United Way Worldwide 브라이언 갤러거 회장(맨 오른쪽)

그는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는 공동모금회가 플랫폼으로서 시민들이 열망하는 지역사회 변화를 가속화하는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제했다. 공동모금회는 그동안 이미 각 사회에서 사회자본(시민들이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파워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더 나은 지역사회 건설을 이끌기 위해 모델을 진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공동모금회 커뮤니티 리더십 & 임팩트 컨퍼런스 현장



브라이언 켈러거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예종석 회장

이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동모금회의 활동을 직장인 모금과 법인 기부를 통해 10년 이상 지원해온 두 기업, 미국의 다국적 금융 기업 웰스 파고(Wells Fargo)와 국제 화물 운송 기업 UPS의 최고 임원들이 연설하기도 했다. 존 캠벨 웰스 파고 총괄부사장은 소외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 재정적 안정, 자영업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과정에서 공동모금회와 함께 기획한 잡 유니아티드 펀드(Job United Fund)로 괄목할 성과를 보인 사례를 소개하고, 공동모금회와 함께한 덕분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UPS의 테리 매클루어 총괄부사장은 공동모금회와 협업해서 UPS의 버스 기사들을 교육해 학대, 갈취 등 시민들이 위험한 시그널을 감지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여성 임직원의 참여를 통한 여성 기부자들의 펀드를 확대해 UPS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해 나간 사례를 소개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 레고 에듀케이션, 세일즈포스, 켈로그, P&G 등의 기업 임원과 호주 싱어 송라이터 해리스 크레이그 등이 연사로 나서 변화하는 사회와 공동모금회의 확대되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 급변하는 아시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떠오르는 아시아 시장과 아태 교육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공동모금회 국제 네트워크 이사회장 및 이사진, 기업 기부자 대표, 고액 기부자, 지회 CEO 및 임원, 주요 이해관계자 등 2,000명 이상의 청중이 자리했다. 예종석 회장은 먼저 사랑의열매를 소개했다. 연간 5,000억 원 이상 모금하는 대한민국 제1 모금 및 지원 기관으로 성장했다는 점과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집중모금, 세계공동모금회와 2018년에 공동 개최한 아태 컨퍼런스 등 주요 활동을 알렸다. 이어 “오늘 저는 이 기회를 빌려 국제 네트워크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아시아 시장과 우리 공동모금회가 파트너로 지원하는 아태교육센터의 향후 비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라는 말로 본격적인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 디지털 접목으로 달라지는 나눔 문화

최근 20년간 아시아 태평양 대륙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단적인 예로 글로벌 포춘 500 중 아시아 기업이 2001년 116개에서 2017년 197개로 급성장해 전체 기업의 40%에 달할 정도다. 사랑의열매도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받아 고액 기부 프로그램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10년 만에 2,000명을 돌파했고, LA 공동모금회와 협력해 LA 지역 회원 8명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테크 벤처 1세대 창립자





들이 고액 기부를 하면서 나눔 문화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세계화와 디지털의 접목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연계하는 디지털 플랫폼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앞으로 시민들의 기부 참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바다.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아시아는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역설했다.

#### **사랑의열매,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예종석 회장은 '혁신의 실험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태교육센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갔다. 지난 2010년 사랑의열매와 세계공동모금회는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해 아태교

육센터를 개관했다. 최근 10년간 아태교육센터는 모금과 임팩트 지식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 지역 공동모금회 회원 국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액 기부, 기업 관리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세션을 지원해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지난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민사회를 눈부시게 발전시킨 경험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육 및 교류의 허브로서 그 플랫폼 성장을 지지하며 함께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세계공동모금회 총회는 국적과 인종을 떠나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해법을 고민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었다.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전 세계 모금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다. ❀

아너 소사이어티-그린랜드 배건조 대표

# “도우며 살라’는 아버지 유훈, 아너 가입으로 완성했습니다”



배건조 대표의 아버지  
故 배동옥 선생은  
큰사람이었다. 중풍으로  
황망하게 떠난 뒤  
이웃에게 전해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는 실로  
놀라웠다. “남몰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며 사셨다”는  
것이다. 돌아가신 뒤에야  
아버지의 행적을 알게 된  
아들은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꼈다.

체험형 농장 ‘그린랜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배건조(74) 대표는 농장에 들르는 누구나 반갑게 맞아준다. “짐승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는데, 어려울 거 뭐 있나요. 물 한 잔에 시간 잠시 내주는 건데”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배건조 대표의 그린랜드에서는 살구·사과·포도를 주로 경작하는데, 농장 한편에 대파·오이·방울토마토 등 채소와 함께 방풍나물 같은 나물도 촘촘히 자라고 있다. 노부부가 먹기에는 좀 많다 싶어 물으니, “사람들 나눠주려고 심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저는 방풍나물 먹을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좋아해서 심었죠”라며 주는 재미만큼 기분 좋은 것도 없다고 말한다. 농장을 유유히 돌아다니는 오골계 한 마리는 그가 베푼 나눔의 보답이다.

“누가나 먹으라고 갖다놨는데, 언제 갖다놨는지도 몰라요.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알도 낱죠.”

### 기부로 평생의 과업을 완성하다

배건조 대표는 지난 4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꿈을 가진 것이 벌써 50년 전인데, 이제야 실천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만족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마치 ‘50년 묵은 숙제’처럼 느껴지던 나눔의 시작은 아버지의 유훈이었다.

“아버지가 선두 살 때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스물여덟 살이었는데 돌아가신 뒤에 이웃 사람이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지요. 학생들에게 장학금 많이 주셨다고. 그때 뭔가 찡하게 오더라고요.”

당시 이웃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배 대표는 할머니 앞에서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할 거예요”라는 결심을 밝혔다. 아들을 앞세운 할머니는 “기부를 하려거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해라”라고 하며 손주의 결심을 응원해줬다. 그런데 사는 게 바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다. 사업을 하던 배건조 대표의 아버지 故 배동옥 선생은 남을 돕는 것이 몸에 밴 체질이였다. 장학금 외에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



살구와 사과나무가 있는 그린랜드 과수원. 작년에만 2,500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배건조 대표도 그렇게 타고났다. 천성이 그랬다. 그런 사람이기에 기부를 실천하지 못해 심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

“기부하기 전에 불면증이 심했어요. 잠이 들어도 꼭 악몽을 꾸더라고요.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고, 누군가 쫓아와서 맨발로 밤새 도망 다니는 꿈을 꿀 정도였죠. 그런데 기부를 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악몽도 싹 사라졌단니까요.”

배건조 대표는 “1억 원을 기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냐”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가 기부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우연히 방송을 통해 아너 소사이어티를 알게 되었다.

“사랑의열매는 알았지만, 아너 소사이어티를 가입하는 곳 인지는 몰랐어요. 인터넷을 할 줄 모르니까 농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1억 원 기부하는 곳이 있다는데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죠.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더니 아너 소사이어티 담당부서 연락처를 적어주더라고요.”

처음에 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아내는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그는 “모든 종교를 좋아하고 존중하지만, 기부는 치우침 없이 종교색이 없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내가 교회 목사님께 ‘남편이 사랑의열매라는 곳에 기부

를 한다는데 어떤 곳이나'고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을 만한 곳이라고, 남편분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칭찬하셨대요. 그 뒤로 아내도 흔쾌히 찬성했죠.”

배건조 대표는 기부 단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주변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건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개인의 도움은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귀한 인간관계까지 틀어지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기탁도 하지 않았다.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곳에 사용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부자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단체를 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곳은 사람인지라 알게 모르게 생색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란단다. 배 대표는 그저 도운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 음악과 그림이 있어 아름다운 노년

그린랜드는 여느 농장과 다르다. 유리온실 옆 휴식 공간에는 대어섯 점의 그림이 걸려 있고, 테이블 옆에는 악보 거치대와 바이올린이 놓여 있다. 배건조 대표는 멋을 아는 사람이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즐길 시간과 여유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을 바꿔야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이올린도 그런 마음에서 구입한 것이다.

“어느 날 TV에서 거리의 악사들이 바이올린을 들고 광장에

서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 싶더라고요. 연주를 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서 일산공원에서 저렇게 연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연주를 청하자 신중하게 현을 누르며 바이올린을 켰다. 서툴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소리였다. 초로의 노인이 들려주는 연주에는 인생이 담겨 있었다. 활을 잡은 굵은 손마디와 굵은 어깨도 연주의 일부가 됐다. 연주를 마친 배 대표는 “농사짓다 바이올린 연습한다고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고문받는 것 같다”며 푸념했지만, 도전만으로도 멋진 연주였다. 실력이 얼른 늘어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싶는데, 농장 일을 하느라 연습 시간이 도통 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하다. 바이올린을 배운 지는 2년 정도 됐지만, 클래식 음악은 오래전부터 즐겨 들었다. 클래식 애호가이던 그는 식물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하우스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클래식 음악을 수시로 들려줄 정도다. ‘좋은 것은 나눠야 한다’는 나눔의 정신이 키우던 작물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연주를 듣고 나니 농장에 걸린 그림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원래 그림 보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산이나 나무가 있는 자연을 좋아하는데, 멋진 풍경을 보면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도 좋고, 그림을 보는 것도 좋아해요. 예전에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 있을 때는 전시회 보려고 경복궁까지 찾아가고 그랬죠.”

그림을 즐기던 배건조 대표가 처음 구입한 것은 화가인 아들 친구의 그림이었다. 구입은 전적으로 큰아들에게 맡겼다. 예술 애호가로서 젊은 작가를 후원하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구입한 그림 몇 점을 농장의 빈 벽에 걸고 나니 갤러리 분위기가 났다. 일상에 예술이 들어올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 대표가 보여주었다.

###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 이후에 초등학교 동창 17명을 불러 농장에서 동창회를 했다. 친구들에게 가입 증서를 보여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도 가입하라”라고 권하기도 했다. 지인을 만나면 아너 소사이어티 안내 책자를 꼭 전달한다.



과수원에서 체험형 농장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포도가 열리면 그린랜드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배건조 대표가 유리온실 안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무슨 돈이 있어서 기부를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곳곳에서 인심 난다고 하지만,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마음이 있어야 나눔이 가능하죠. 저는 2,000평짜리 농장 주인인데, 1만 평 농장주인 친구에게 안내 책자를 줬더니 아직까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웃음) 내려놓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아직 잘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배건조 대표는 농장에서 태어난 양몰이 강아지 케리(7)와 함께 요즘 농장에서 지낸다. 아내가 있는 집에는 가끔 다녀온다. 농장 일이 바쁘기도 하지만, 결혼 50년이 가까워지니 편하게 지내자는 마음에서다. “요즘 유행인 줄혼 시행 중”이라는 농담을 건넸지만, “시집와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고 잘 키워준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시대 가부장적인 아버지답게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지만, 자식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죽고 난 후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아버지의 유혼을 깨닫기보다 생전에 느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가입식에 아내와 자식들, 손주들이 함께해 더욱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자식들도 잘 자라주었고, 제 살 길 찾았으니 더 바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혼자만 살지 말고, 옆 사람 돕고 주변도 살피면서 살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행적을 알게 된 것이 한처럼 남았거든요. 다행히 저에게는 시간이 있어서 생전에 기부도 하고, 기부식에 자식들도 참석해 축하해줬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요.”

배건조 대표는 나눔이라는 크고 귀한 유산을 남겼다. 나눔의 정신은 배 대표의 가정을 넘어 우리 사회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

# “후세에 물려줄 최대 유산은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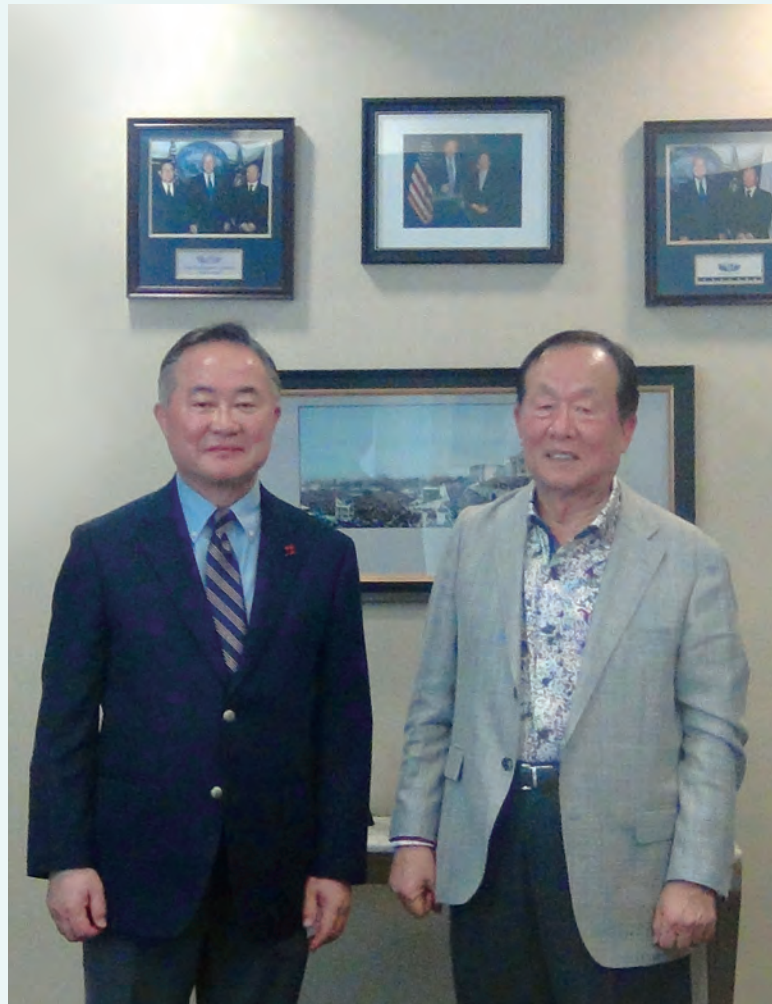
예종석 회장이 만난 미주 동포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리더

## 김동구 비피인더스트리 회장

“도움받은 대학생들이 언젠가 1000배 이상을 세상에 돌려줄 것이라 생각해요.”

사랑의열매는 아시아 지역의 교두보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재외 동포의 다양한 기부 욕구에 부응하고 동포 사회에 선진적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미주 한인이 밀집해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차례로 방문해 현지 나눔 문화를 선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인 기업가들을 직접 만났다.

비피인더스트리 김동구 회장은 1989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후 오직 신뢰와 끈기로 미국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사업의 이윤 축적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나눔으로 진정한 성공을 완성해가고 있다. 예종석 회장과 그의 대담을 정리했다.



LA의 김동구 비피인더스트리 회장(77)은 천석꾼 집안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흔히 말하는 사대문 안 부자 집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6·25가 발발하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큰형도 죽고 말았다. 작은형은 북으로 끌려갔다. 아홉 살 때 어머니와 함께 충남 당진 합덕읍으로 피란을 갔다. 그리고 거기서 잊지 못한 인생의 첫 ‘나눔’을 경험했다. 바로 도시락이었다.

**예종석** 어릴 적에 특별한 나눔을 경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동구** 어머니가 밤낮으로 먹을 것을 구하느라 도시락 쌀 시간이 없었어요. 점심때 벨이 울리면 그는 운동장에 나와 시간을 보내며 굶기를 밥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에 있다가 교실에 가 보니 책상위에 도시락이 놓여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담임선생님이 자신의 도시락을 저한테 준 거였어요. 그때 제가 겨우 아홉 살이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나중에 나도 선생님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야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예종석**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김동구** 하루 세 끼 찾아먹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죠. 어머니가 남의 집 일해주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구호물자로 운동화를 받았는데 그저 모셔 놓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 지붕은 맥주 깡통으로 엮어 간신히 덮어놓고, 나무로 된 사과 상자 속에 백열전구를 넣어 그 온기로 추위를 이겼습니다. 그토록 힘든 시절에 누구에게 밥 한끼 준다는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예종석** 1989년 한국의 회사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나셨는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동구**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 여건이 조금씩 어려워졌습니다. 또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인데 번 돈을 부동산 투기나 은행 이자 놀이를 해서 불리라는 주변의 제안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 이란게 맘 흘려서 벌어야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랬다면 더 큰 부자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영하던 회사는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람에게 돈 안 받고 넘겼습니다. 직원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조건이었죠.

**예종석** 40대의 비교적 늦은 나이였는데, 미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듯합니다.

**김동구**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 2금융권에서 10만 달러를 빌려서 책상 하나에 전화기 한 대 놓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에서 사업할 때 신용을 쌓은 미국 내 인맥이 그대로 남아 있어 회사를 금방 키울 수 있었죠. 1967년 명동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이 미국에서 사업할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예종석** 능산이라는 호의 뜻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김동구** 2017년에 서울에 갔을 때 지인이 <소학(小學)>의 '적이능산(積而能散·재산을 능히 베풀 줄 안다)'이란 글귀를 따서 '능산'이라는 호를 지어줬습니다. 나눔 정신을 잘 담아낸 호가 아닐까 해서 쓰게 됐습니다.

**예종석** 디케이킴 코리아재단에도 그 뜻이 담겨있지요.

**김동구** 50대 초반까지는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삶에 여유가 생기니 잊고 있었던 초등학교 때 선생님과 그때의 제 다짐이 생각나

더라고요. 그래서 디케이킴 코리아 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을 통해서 명문대에 재학 중인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들이 내가 준 것의 1,000배 이상을 세상에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종석** 나눔과 사회 환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동구** 학생들이 물질적 만족보다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가르치는 참다운 교육에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현재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 금액을 기부하고 있어요. 지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저처럼 사회에 기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차츰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예종석**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바람이 있으신가요?

**김동구** 경제 원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가난한 마을에 학교를 지어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캄보디아와 콜롬비아에서 시도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스페인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학교가 절반밖에 지어지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 때 제가 기부를 하여 나머지 설립을 추진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현지 카톨릭 교회에서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늘려나가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



**김동구 회장은**

- 출생** 1942년 서울 출생    **소속** 비피인더스트리 회장
- 수여** 2018 한양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 경력** • 1989 비피인더스트리 설립    • 2003 디케이킴 코리아재단 설립
- 美 공화당 100대 기부자

인천 나눔리더 119호에 가입한 인천부평소방서 양승용 소방위

## “119라는 숫자, 제게는 운명인 것 같아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여기에 또 한 번 진한 감동을 안겨준 소방관이 있어 화제다. 평소에도 많은 나눔 활동을 이어오던 인천부평소방서 양승용 소방위가 그 주인공으로 최근 기쁜 일을 맞아 나눔리더에 가입한 것이다.



## 인천 최초 KBS119 대상 수상

2017년 인천 사랑의열매에 첫 나눔리더가 탄생한 지 2년 만에 119호 가입을 돌파했다. 특히 화재·구조·구급 긴급 전화번호 119를 떠올리게 하는 양승용 소방위가 나눔리더 119호 주인공이 되면서 지난 5월 14일, 인천 부평소방서에서 열린 나눔리더 가입식이 한층 뜻깊었다. “제가 지난 4월에 KBS119 대상을 받았어요. 받은 상금 중 일부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나눔리더 가입을 결정했지요. 저에게 때려야 떨어지지 않는 119라는 숫자가 부여돼 더욱 의미 깊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리더 가입 소식을 알렸을 때 좋은 일을 한다며 격려해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동안 고생한 자신을 위해 쓰라고 가입을 만류하는 이도 있었다. 후자는 대부분 그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소방관들이었다. 동료들은 이 상금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KBS119상’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119 구조와 생활 안전 활동 분야 발전에 공이 많은 대원을 표창하는 상이다. 양 소방위는 지난 2017년 7월 부평구 청천동 7호선 연장선 지하 공사 현장에 폭우로 고립된 근로자 7명 전원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KBS119 대상을 수상해 인천 최초 KBS119 대상 수상자라는 영예까지 안았다.

## 지하터널 300m 수영해 구조

“당시 지하 30m 터널 지하철 공사장에 빗물이 3m 정도 차오른 상황이었어요. 로프에 의존해 어두컴컴한 지하로 내려간 후 300m를 수영하며 고립된 근로자들을 찾아 구조했어요. 소방관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에 얼떨떨한 기분이었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 터널 속에서 사람 키를 훌쩍 넘긴 깊은 빗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면서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 베테랑 소방관인 그조차도 당시 구조 활동을 마친 후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을 정도였다고. 소방관이란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은 가슴 졸이기 마련이다. 양 소방위의 가족도 그랬다. 지하 터널에서 펼친 구조 활동 이야기를 듣고 가족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상을 받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일 먼저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건 다행히 잊지 않았어요.(웃음) 내년이 결혼 20주년인데 저를 걱정하느라 밤새우는 일이 많은 아내에게 대상 수상이 특별한 선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승용 소방위와 동료 소방관들이 함께한 나눔리더 가입식 현장

## 가슴 아픈 출동 현장에서 다짐한 ‘나눔’

양승용 소방위는 소방관이 되기 전 해군 특수부대인 SSU(해난구조대) 부사관으로 12년 동안 복무했다. SSU 대원으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구조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 2004년 전역을 했고, 2005년 구조 특채로 임관한 구조 전문가다.

“해군에서 구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구하고 도움을 주었다는 보람과 뿌듯함을 많이 느꼈죠. 시간이 갈수록 시민의 곁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소방관에 지원했고 오늘 날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이러한 양 소방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출동 현장이 있다.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구조하는 경우다.

“마음이 아프고, 자꾸 신경이 쓰이죠. 그런 현장을 다녀온 후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나눔 활동을 해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는 나눔 활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5년째 정기 기부를 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 서비스 지원, 김장 봉사 등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언제든, 어떤 상황이라도 위험한 일에 가까이 달려나가는 양승용 소방위 같은 소방관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전한 날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양 소방관을 비롯해 전국 모든 소방관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창립 34주년 기념식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다짐하는 애경산업 임직원들과 이윤규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

### 인생도 가꾸면 예뻐져요

## 이웃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하는 애경산업

사랑(愛)과 존경(敬)은 애경산업의 기업명이자 기업 이념이다. 창립 34주년을 맞은 지금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기업’을 모토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과 장학 사업, 친환경 지원 사업, 1사 1촌, 자원봉사, 문화예술 후원 등 폭넓은 공익 사업을 통해 밝고 풍요로운 인류 사회 건설을 위한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 뷰티 기업인 애경산업은 지난해 구로에서 홍대 근처로 사옥을 이전하며 홍대 시대를 열었다. 사옥 이전과 함께 직책 대신 ‘~님’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자율 복장을 도입해 한층 젊고 실용적인 애경산업으로 변신 중이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도 ‘나눔’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히려 관심 밖으로 밀릴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해 좀 더 폭넓은 사회 공헌을 실천 중이다. 애경산업의 나눔은 ‘실용성’과 ‘전문성’으로 요약된다. 장학금 지원의 경우 단순히 학비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

수강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해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맞춤 지원할 수 있게 한다. 형식을 건너낸 실용성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또한 생활용품·화장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경만이 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기도 한다. 생활용품과 화장품 지원이나 빨래 봉사, 반려동물용품 지원과 봉사 등이 대표적이다. 애경산업의 임직원들은 (자금 지원과 물품 지원은 물론) 직접 참여해 땀 흘리는 일에도 열심이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이주배경청소년 장학기금

### “장학금으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1985년에 설립한 애경산업은 매년 창립 기념일인 4월 25일에 화려한 기념식이나 이벤트를 여는 대신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7~21세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중도 입국 청소년·외국인 근로자 자녀·탈북 청소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장학기금 행사는 2015년 애경산업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시작해 벌써 5회째를 맞고 있다. 창립 기념 햇수만큼의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창립 30주년에는 청소년 30명에게 장학금 총 7,500만 원, 31주년인 2016년에는 총 31명에게 7,750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매년 소중한 인재들을 발굴해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애경산업 장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소중한 결실을 맺고 있다. 후원금은 매월 애경산업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과 회사가 반반씩 조성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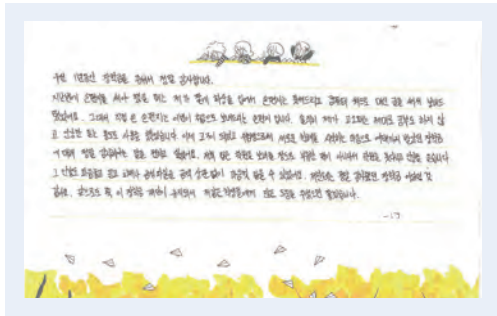
탈북민 가정 출신의 한 모 군은 “한국에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원 다니는 한국 애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말한다. 이렇듯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걸돌고, 교육을 받지 못해 한국 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애경산업의 이주배경청소년 장학기금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애경산업은 공부나 진로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비 지원으로 한정하는 일반 장학금과 달리 자격증 취득, 성적 향상이나 진로를 위한 학원 수강료도 신청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영수 처리가 가능한 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한 후 무지개청소년센터에 영수증이나 수강증을 제출하면 된다. 자격증 취득이나 성적 향상 등의 성과를 나타낸 장학생은 다음 해 연속 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덕분에 수학 성적이 40점대에서 80점대로 오르고, 내신 등급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되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헤어미용사 자격증을 따거나 전산회계 1급과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의 자격증을 따는 등 공부 이외의 진로를 모색하기도 한다. 변화를 경험하며 삶을 대하는 학생들의 자세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한 것이 이주배경청소년 장학금의 가장 큰 수확이다.

### 이주배경청소년 장학금의 성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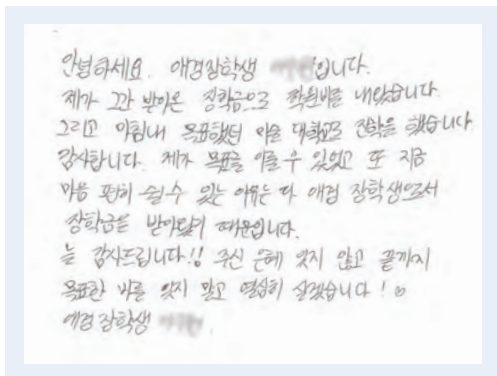
#### CASE1 “미술 학원 지원으로 디자이너 꿈 이룰 수 있었죠”

다문화 가정 출신의 A 학생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다.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는 남매를 키우기 위해 복지관 소개로 파출부, 환경미화원을 시작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A 학생은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미적 감각이 탁월해 디자이너로서 재능이 충분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집안 형편이 아니었다. 디자인 미술 실기를 배우는 학원비는 일반 가정에서도 부담이 될 정도로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애경 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이다. A 학생은 올해 목표로 하던 서울 소재의 시각미디어디자인과에 진학하며 마침내 꿈을 이뤘다.



#### CASE2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B 학생은 고2 때까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한부모(편부) 가정의 자녀인 B 학생은 할머니와도 함께 사는데, 아버지는 지체장애 6급에 할머니 역시 청각장애 2~3급으로 경제활동이 순탄치 않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활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은 그야말로 사치다. 온라인 강의인 인강마저도 마음껏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애경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서 생활이 달라졌다. 마음 놓고 인강을 수강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 장애인 고용 지원

### “일하는 당신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협약식을 갖고 '모두락(樂) 애경산업'을 설립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무고용 사업주인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했다.

이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사내 카페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7층에 위치한 사내 커피숍 '카페 포틴(Cafe Fourteen)'은 그렇게 생긴 공간이다. 커피의 신선한 맛을 위해서 로스팅한 지 14일 이내의 원두만 사용한다는 원칙 아래, 바리스타와 매니저가 직접 개발한 메뉴를 판매한다. 이 카페가 남다른 것은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 등을 가진 10여 명의 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한다는 것이다. 카페 포틴을 이용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에게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며 “일상에서 자주 접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어졌다”고 말한다.

애경산업은 매년 명절마다 장애인 화가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발달장애 청년 화가 김태호 작가의 작품으로 추석 선물 세트를 제작했고, 당시에 국내 최초로 패키지 디자인과 제품 조립을 모두 장애인에게 맡겨 자립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후에도 신동민 작가(발달장애), 송은주 작가(청각장애)와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을 연이어 선보이며 우리 사회에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 제품과 기술력으로 봉사하다

### “애경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사랑을”

애경산업에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 '낭만개냥이'가 있다. 이들은 유기견과 유기묘들의 쉼터를 찾아가 청소, 산책 등 봉사 활동을 한다. 애경산업의 프리미엄 펫케어 브랜드 '휘슬'의 고양이 모래, 강아지 배변 패드, 샴푸 등 물품도 기증하고 있다. 휘슬은 애경산업의 대전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암컷 시바견의 이름이기도 하다. 휘슬이는 지난해 1월 이윤규 대표에게 임명장과 사원 번호까지 받은 어엿한 '견사원'이다. 애경산업은 2016년부터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휘슬을 론칭하면서 연구소에서도 직접 반려견을 기르기 시작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제품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1 애경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 연 매출 100억 원 돌파를 기념하며 주방세제 부라보 1,000박스를 기증했다. 3 반려동물 동호회 낭만개냥이 회원들이 유기견·유기묘 쉼터 '쉬어가개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1 애경산업의 프리미엄 펫 케어 브랜드 휘슬에서 생산하는 고양이 모래, 애견 배변패드, 삼푸 등을 유기 동물 쉼터에 기부하고 있다. 2 밝은 표정으로 이불 빨래 봉사를 하는 직원들 3 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사내 커피숍 카페 포틴에서 주문하는 직원 4 물품기부 전달식에 참석한 송기복 애경산업 상무와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오른쪽)



이었다. 그렇게 휘슬이 입사하면서 낭만개냥이라는 사내 동아리가 탄생했다. 휘슬이의 입사로 사내에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해 반려동물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다. 낭만개냥이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상품을 유기견 센터에 후원하고, 길고양이 구제 모금 행사나 구호 활동도 한다. 애경산업은 세탁 세제에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따라서 애경산업의 빨래 봉사 활동은 필연일지 모른다. 2010년 경제성과 월등한 품질로 인정받는 액체 세제 '리큐'를 출시했을 때도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에서 생활하는 초·중·고등학교생 600여 명의 옷가지와 이불 등을 리큐로 세탁하고, 각 생활관 청소 및 각종 생활용품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했다. 2012년부터는 미향회(애경산업 여직원회)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이동 빨래방 차량을 이용해 홀몸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와 복지관 시니어케어센터의 침구류와 구립 어린이집 놀이 기구 등을 세척·소독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애경이라서 가능한 봉사이기도 하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봉사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선순환에 판매 실적도 거침 없다. 주방 세제 시장이 주춤할 때도 식자재 전문 주방 세제 '부라보'

는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갔다. 애경산업은 2017년 연 매출액 100억 원 달성을 기념해 사랑의열매에 주방 세제 부라보 500박스를 전달했다. 2016년 처음으로 연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19% 성장하며 2년 연속 연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그렇게 2년에 걸쳐 1,000박스의 기부 행렬을 이어갔다. 사랑의열매에 전달된 부라보는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소속 전국의 노인종합복지원 258곳에 전달돼 어르신을 위한 식당 봉사 활동 현장에서 사용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20억 원 상당의 '사랑나눔 물품기부'도 이루어졌다. 이번 기부는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필수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가정의 달의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 애경산업은 사랑의열매와 함께 2009년부터 물품 기부 행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136억 원 상당의 물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애경은 회사 설립 가치인 '사랑과 존경'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다. 애경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이웃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이렇듯 함께 나누는 따뜻한 기업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희망적이고 행복해질 것이다. 🍀

# 나눔과 꿈

이레정신재활시설 '더빙 프로젝트'

##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힘 얻었어요”

이레정신재활시설은 2000년 10월에 개소한 이후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재활 시설이다. 정신장애인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사회 재활 프로그램 운영, 통합적 사례 관리, 다양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빙 프로젝트 참여자들. 21의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다.



### 조현병에 걸리면 나쁜 사람인가?

조현병은 최근 뉴스에 나오는 강력 범죄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정신 질환이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내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호소한다.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병력과 진료 사실을 공개하길 꺼리는 이유다. 이런 자극적 보도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아픈 환자가 아닌 ‘나쁜 환자’로 인식된다. 신체적 고통에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레정신재활시설이 나선 것은 이러한 편견 때문이다. 나눔과꿈 ‘더빙 프로젝트’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이들 스스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 대본 읽으며 말하고 듣는 연습부터 시작

이레정신재활시설 직원들은 오랜 기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신장애인의 발성이나 목소리 크기, 억양 등에 대해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화 훈련을 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해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지원자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원활한 더빙 프로젝트를 위해 전문적인 미디어 교육도 이루어진다.

왔다. 실제로 정신장애인은 감정 표현과 대화 기술의 부족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많다. 취업 후에도 직장 동료와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다수 있어 적절한 자기표현과 자기주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신난다! 그림을 잔뜩 그릴 수 있는 새 스케치북이야!”

“성가신 엄마처럼 굳다는 거 알지만, 너도 네 오빠 알잖니. 솔직히 너무 걱정돼.”

대본을 읽을 때면 ‘더빙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어린 아이가 되었다가 중년 여성이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화를 내거나 걱정하거나 크게 기뻐하는 등 다양한 감정을 연기한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따라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이레정신재활시설은 2017년부터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가진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해 더빙 프로그램을 추진해왔

다. 일회성 체험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은 이레정신재활시설이 유일했다. 애니메이션이나 시트콤, 만화 등의 캐릭터들을 통해 감정을 간접 체험하고 표현력을 키워왔다. 이후 참여 회원들의 목소리 크기나 발음의 정확도와 표현력이 향상되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직접 연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얼굴이 나올까 봐 걱정”이라는 정신장애인에게 더빙은 탁월한 대안이 되었다.

### 정신장애인도 존중받는 삶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6%가 무직 상태이며, 직업이 있더라도 보호작업(16%), 계약직(10.1%), 임시취업(3.5%) 등 불안한 고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정규직은 7.7%에 그쳤다. 평균 가계소득은 50만 원 미만이 30.5%로 가장 많았고, 50~100만 원은 28.2%로, 절반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0%가 기초생활수급권자고, 차상위계층은 9%로 나타났다(2019년 기준). 사회에 의한 그들의 상처와 고통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심각하다.

현재 정신장애인은 15가지 장애 유형 중 타 장애에 비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장애인 중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라 정신건강간호사는 타 장애들과 달리 정신장애인은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규제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각종 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요리사 뿐 아니라 심지어 말을 조리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해요.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근무를 제한하는 거죠.”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빙 프로젝트’에서는 당사자를 위한 인권 교육도 이루어진다. 인권 교육을 통해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당함과 차별에 눈뜰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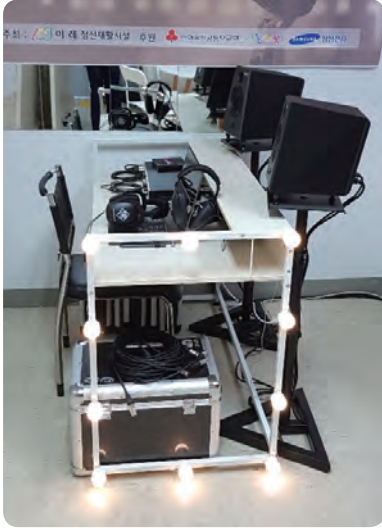
### 인식개선에 도움, ‘나눔과꿈’ 사업 선정

나눔과꿈 사업에서 이레정신재활시설이 선정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사랑의열매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기보다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레정신재활시설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 나눔과꿈 사업 이전에 2년간 진행되었던 더빙프로그램 경험으로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진행할 역량이 있었다. 실제로 성우교육과 더빙활동에 참가했던 당사자들의 간접체험과 감정표현을 증진하고 발성 교정에 큰 도움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나눔과꿈 사업의 결과물이 장애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높이 샀다. 의정부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상태로 우리 사회는 아직 정신장애인에 대해 이해도가 낮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오디션 심사위원들은 ‘화술, 발성, 표정, 열정’ 등 세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나눔과꿈 지원으로 더빙 장비를 갖춘 녹음실이 생겼다.

욕구 조사에서 ‘대인 관계 훈련에 참여하고 싶다’, ‘정신장애를 공감할 수 있는 당사자 주도 모임이나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시설 밖의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릴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항목에 70% 이상이 높은 욕구를 보였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중 대부분은 학창 시절 왕따당한 경험이 많고,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대인 관계와 사회생활이 크게 위축되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조기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추후 초등 복지 교육을 통한 정신장애인 조기 인식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장애인이 직접 더빙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이들의 잠재 능력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빙 프로젝트’는 서울과 경기 북부 정신장애인이 연대해 당사자가 직접 인식 개선 영상을 만들어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치유하는 프로젝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

## INTERVIEW

“정신 질환도 당뇨처럼 관리가 필요한 병일 뿐”

### 정신건강간호사 이유라



#### 2019년 나눔과꿈 사업 지원으로 달라진 것은?

지난 2년간 진행해오던 더빙 프로그램을 보완해 3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긴 호흡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질이 높아졌고, 당사자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쁩니다. 전문 장비를 구축하거나 강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지면서 참여자 모집 시에도 현장에서 많은 분의 참여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또 타 기관의 종사자들조차도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힐 정도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인 참가자도 있었나요?** 초반에는 대부분 대인 관계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만큼 처음부터 특별한 소속감과 성취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연극class스피치 교육 시 전문 강사가 교정해준 발성대로 하려고 적극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김\*웅, 이\*화 참가자는 더빙 오디션 합격 이후 각 소속 기관에서 자치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사적인 전화를 잘 받지 않던 김\*웅 참가자는 전화를 잘 받기 시작했고, 타 기관의 회원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여가 시간을 보낼 정도로 원활한 대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의 초반인데, 추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장기간의 협동 작업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당사자 간의 연대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타인의 대사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훈련을 지속해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 제작 영상을 활용해 관내 초등학교에서 초등 복지 교육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차후 2년 차, 3년 차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과 정신장애인 아동용 체험물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신장애인은 뉴스에서 강력 범죄와 관련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탓에 매우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과 오해 때문에 병을 숨기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 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조절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은 부끄럽고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치료와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정신장애인도 이웃으로 존중해주고 편견 없이 바라봐주길 부탁드립니다.



## 착한 타이밍을 잡아라!

- 착한가게 · 착한일터 · 나눔리더 연이어 가입해 나눔 실천하는  
부산(주)정현전기물류 오상훈 대표

나눔은 필연 같은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몇 년 전 나는 가족 여행 중 여수의 한 식당 입구에 걸린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현판을 보게 되었다. 웬 일인지 현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찰나였지만 잠깐 잊고 있던 기억과 감정이 되살아났다. 어려웠지만 늘 인정이 넘치던 할머니, 언제나 나를 돕고 살라는 아버지의 말씀, 때가 되면 나를 돕겠다는 나의 다짐 같은 것들이 말이다. 사랑의열매와의 인연도, 나눔의 여정도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본 착한가게 현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나는 착한가게를 시작으로 나눔리더, 착한일터 등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눔의 활동을 늘려갔다.

### 아들아, 돈 많이 벌어 많이 도와거라

나는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아버지께서 일군 회사에서 차근차근 배워 이제는 어엿하게 내 사업체로 독립했다. 누군가는 나를 일컬어 2세 경영인이라고도 한다. 유명 재벌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배려로 별다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 하지만 그런 나와 달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어린 시절 무척 가난하게 사셨다고 한다. 지금은 관광지로도 각광받는 부산 자갈치시장 근처의 삼복도로라는 곳이 아버지가 확장 시절 사시던 곳이였다. 당시 할머니는 참기름 장사를 하시며 아버지와 삼촌, 고모 등 사남매를 키워내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는 인성 넘치는 분이셨다. 작고 깡마른 할머니가 참기름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파른 경사의 산복도로를 오르내리는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자리를 잡으신 후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라”,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도와주어라”, “네가 하면 좋겠다”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다. 아버지 또한 인정이 넘치는 분이셨고 오랫동안 보육·장애 아동 시설에 후원도 해오셨다. 하지만 옛날 분들 대부분이 그렇듯 아버지도 남을 돕는 일이란 거액의 기부쯤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서인지, 당신께서 어려운 사람을 충분히 돕지 못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늘 남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선한 당부는 나도 모르게 언젠가 꼭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새겨져 있었다.

### 여행길에서 만난 착한가게 현판

여행에서 우연히 착한가게의 현판을 봤을 때가 막 독립한 무렵이었다. 그래서 더 강렬하게 그 현판에 내 시선이 꽂힌 것 같다. 아직 성공을 향해 한참 달려야 하는 30대 새내기 사장이지만 “네가 하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당부를 실행에 옮

길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주변에선 젊은 사람이 대견하다고도 하지만, 젊은 사람이 한창 바쁠 나이에 뭐 그런 일을 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아마도 나눔이나 후원, 기부 같은 것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어른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지면을 통해 꼭 이야기하고 싶다. 청춘은 나눔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이다. 나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남을 돕진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회사를 더 키우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한 사업가 혹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 나눔을 통해 보람과 행복도 느끼지만, 사실 더 열심히 살겠다는 성공의 욕구가 강해진다. 아버지는 종종 사무실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자들의 신문 기사를 보시고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감탄하시곤 한다. 나도 아버지가 감탄해마지않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사업도 나눔도 열심히 키워서 말이다. 인생에는 몇 번쯤 찾아오는 착한 타이밍들이 있다.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거기에 성공과 행복이 있으므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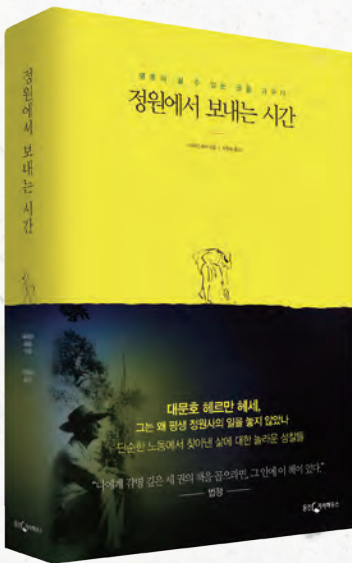
나눔리더로 시작해 착한일터, 착한가게에도 가입한 오상훈 대표. (오른쪽에서 두 번째)



# 자연이 주는 기쁨이 필요한 당신에게

— 헤르만 헤세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비마다 갈등에 빠지는 시기가 닥칩니다. 그때는 삶이 난파할 수도 있는 위기이겠지요. 당신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혼자 고심하는 당신에게 '정원의 목가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 책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냅니다.



## 세상으로부터 내면의 상처를 받을 때

6월의 태양이 하늘 맨 위로 솟아올라 황금빛을 땅에 골고루 뿌립니다. 그 빛을 받으며 텃밭에 심은 토마토와 과수원의 사과나무마다 열린 파릇파릇한 열매들도 둥글게 익어갑니다. 땅에서 솟아나 가지를 뺀고 열매를 맺으며 번성하는 식물들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을 벅차게 하지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만난 당신은 어떤 일인지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군요. 눈은 썩고 피부는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당신은 별일 없다고 말하더군요. 사는 일이 시들해지고, 얇은 잠을 자며 자주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벼들을 만나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떠는 일도 이제는 즐겁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당신은 내면에서 생동하는 불꽃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실의와 낙담에 빠진 이

유를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이모, 이모” 하며 살갑게 따르던 친한 벗의 열세 살 된 딸이, 그 발랄한 소녀가 지금 혈액암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소녀에게 그런 질병을 허락한 전능한 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에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내면의 상처를 정원 일을 하며 치유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국가에 반대합니다. 당시 독일 내부에는 잘못된 애국주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애국주의자들은 광분해서 전쟁이야말로 독일이 위대한 국가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거라고 국민을 선동했고, 국민 다수가 이 선동에 동조했습니다. 헤세는 작가적 양심과 인류애를 내세워 전쟁이 “매우 위험하며 폭력적인 사업”이고,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전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헤세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조롱당하고 협박받았습니다. 벗 들조차 등을 돌리자 헤세는 세상의 냉대와 물이 해에 상처받고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서 “나의 평화, 나의 건강, 나의 가족은 파멸되고 말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살상으로 얼룩진 세계대전의 광풍을 겪으며 사회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강압에 짓눌린 채 벗들과 사회와의 교류를 일체 끊고 자아로 후퇴했습니다. 인류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에 질리고 상처받은 탓이지요.

### 자연의 치유력으로 되찾은 평온한 일상

헤세는 도피자와 은둔자의 심정으로 시골에 집을 구해 “파괴된 세계를 내 내면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소박한 갈망으로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정원 일의 즐거움에 빠져 메마른 내면을 풍요롭게 바꿔나갔습니다. 식물의 내적 평화,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 숲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순환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며 고갈된 평화와 사색의 능력을 되찾았지요. 그는 나무가 위대하고 성스러운 존재라고 칭송했습니다. “나

무는 모든 생명력을 동원해 자신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만을 위해 애쓴다. 그것은 바로 나무에 내재해 있는 그들 안의 고유한 법칙을 따르는 일이다. 자신의 고유한 형상을 완성해나가면서 자신을 스스로 표현해내는 일이다. 아름답고 강인한 나무보다 더 성스럽고 더 모범이 되는 것은 없다.” 그는 한 그루씩 홀로 서서 자라는 나무, 그 내부에 “하나의 핵(核)과 하나의 불꽃과 하나의 생각이 숨겨져” 있는 나무, 영원한 생명을 지닌 나무, 이 자연의 어머니에게서 베토벤이나 니체같이 자신의 고독을 버터내는 위대한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들이 교훈이나 처방 따위를 내리지는 않지만, 척박한 토양과 혹한 또는 폭우 속에서도 무심하면서 근원적인 삶의 자세를 일러줍니다. 나무는 머리 꼭대기를 하늘에 두고 뿌리는 땅속 깊이 박은 채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을 따르며 아름답고 강인한 존재로 우뚝 섭니다.

헤세는 자신의 정원에서 자란 과일과 채소를 보며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의 일기’에서 “이 마지막 여름을 이곳에서 제대로 축하하며 보내기 위해 나는 정원에 달리아, 당아욱, 카네이션 수백 송이를 심었다”라고 적지요. 자신이 펼친 사상과 철학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되고, 배신자라는 낙인에 괴로워하며 삶이 피폐해진 한 작가가 정원 일을 하는 가운데 자연의 치유력으로 회생하는 과정은 펍 감동적입니다.

생명의 풍성한 기운이 넘치는 6월, 내가 보낸 이 책이 실의로 가득 찬 채 우울한 날을 보내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당신이 생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



**작가 장석주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동경해왔으며, 스무 살 때 시인으로 등단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시와 문학평론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 때로는 대학교수, 방송 진행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했으나 지금은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쓴 결과, 엮은 책이 100여 권에 달할 정도로 왕성한 글쓰기를 하는 문장노동가다.



**정신우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 맛과 향으로 사람을 홀리는 매실과 꽃게

맛있는 음식의 최고 비법은 간을 잘 맞추는 일이다. 짠맛이 부족하거나 넘쳐서도 안 되고, 침샘을 자극하는 신맛이 도드라지지 않으면서 식욕을 돋워야 한다. ‘염매장(鹽梅漿)’이란 단어는 소금과 매실을 이용해 간을 잘 맞춘다는 뜻이지만, 과거에는 신하가 임금의 도와 태평성대를 이끈다는 의미로도 사용했다. 오늘날엔 주부와 요리사의 요리를 돕는 식도락(食道樂)의 비책이다.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는 최고의 조미료 ‘매실’**

중국 음식의 필수 양념이 굴 소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엔 매실청이 있다. 흑자는 효소로 부르기도, 발효액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매실을 이용한 당절임(채소, 과일 등을 설탕에 재서 저장하는 가공법)이다. 이 과정에서 매실의 액과 향이 가두어지고 방부 효과와 산화방지 효능이 생긴다. 가까운 일본은 매실을 주로 우메보시(매실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절임 요리)로 먹는다. 소금에 절인 매실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대신 매실 자체의 향을 온전히 보존한다. 여름날 쉽게 상하기 쉬운 밥에 얹어 먹거나 주먹밥 안에 넣어 방부 역할을 하게 하고, 생선조림에 넣어 특유의 비린내를 잡는 데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매실청은 설탕을 대신한다. 불고기와 같은 육류 요리나 나물무침, 디저트와 음료 등에도 사용한다.



덕분에 해마다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집집마다 매실청 담그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매실은 열매를 기준으로 푸른 녹색빛을 띠는 어린 열매를 청매(青梅), 익어서 노란빛을 띠는 열매를 황매(黃梅)로 나눈다. 어린 열매엔 아미그달린(amygdalin)이란 독소가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1년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치면 에멀신(emulsin)이란 효소에 의해 독성이 분해된다. 청매는 음료에 좋고 황매는 요리에 좋다. 안전한 방법은 충분히 익은 열매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끔 필자에게 매실청을 실패했다고 원인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설탕 문제인 경우가 많다. 보통은 매실과 설탕을 1:1의 비율로 청을 담그지만 최근 당분을 줄이겠다고 원당, 올리고당이나 쌀엿 등을 첨가하면서 설탕이 충분히 녹지 않거나 당 함량이 부족해 절임이 아닌 과발효가 된다.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초(醋)가 되어가는 형국이다. 우선 설탕이 충분히 녹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의도적으로 발효액을 만들려고 한다면 미생물의 활동이 가능하고 당분을 먹이로 발효가 가능하게끔 설탕량을 30% 이하로 낮추고 걱정 보관 온도를 유지해 꼼꼼하게 숙성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만든 매실청이나 발효액은 어머님들의 만능 조미료가 된다.

충남 서산에서 꽃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손맛 좋기로 유명하다. 대표의 꽃게탕, 간장게장도 당연히 진리인 맛이지만, 사실 나는 그 집 반찬으로 나오는 꽃게무침을 최고로 친다. 대표의 비법은 단순하다. 햇고춧가루, 3년 숙성한 까나리 액젓 그리고 직접 담근 황매실청이다. 해마다 항아리 안에서 새로운 매실청이 숙성된다. 달콤하고 향긋한 향이 끊이지 않는 한 그 맛도 여전할 것이다.

### 게 맛이 무섭다

나는 게 맛이 무섭다. 어려서 처음 맛본 게는 참게다. 한자로는 해(蟹) 또는 천해(川蟹)라 부르는데, 살은 적지만 고소한 내장 맛이 그야말로 일품이다. 참게게장 속을 박박 긁어서 갖 지은 밥에 내장과 비벼 먹으면 현기증이 날 정도다. 참게매운탕은 달고 시원하다. 전남 고성 친구 집에서 처음 칠게장을 먹었다. 어린 게들을 통째로 사정없이 갈아 양념한 것같이었는데, 밥에 비벼 보니 과정은 공포스러웠으나 맛은 천국 같았다. 대체로 맛은 달았고, 게 살은 사르르 마음을 녹였다. 뭐니 뭐니 해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는 살이 딱 찬 꽃게다. 사실 요즘은 꽃게가 너무 비싸서 슬프다. 돈 없어서 쇠고기가 아닌 꽃게 먹고 싶다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가 많다.

6월엔 알과 장이 딱 찬 암게로 간장게장을 담그고, 10월엔 살이 가득한 수게로 찜이나 탕을 끓여 먹는다. 대체 게는 언제부터 맛있었던 것일까? 고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는 최소한 1600년 전후로 게장을 먹기 시작했다. 조선 시대 이덕무(李德懋)가 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게딱지에 밥을 담아 먹지 말라”는 식사 예법에 관한 글귀가 나오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틀렸다. 반드시 비비거나 볶아서 게딱지에 채워 먹어야 한다.

게딱지에 속을 채워서 무지막지게 맛있어진 요리가 있다. 바로 궁중 요리인 게감정이다. <조선왕조 궁중음식>이란 책에 자세한 레시피가 나와 있다. 게살을 일일이 손으로 바른 다음 다진 쇠고기, 숙주, 으갠 두부 등으로 버무려 게딱지에 속을 채우고 다시 밀가루와 달걀을 무친 뒤 기름에 지져낸 후 쇠고기 육수에 장을 풀어 국을 끓이는 요리다.

요리사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놀랄 만한 맛과 영양을 지닌 요리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 있는 꽃게 요리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지 않았는가! 게 맛을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꽃게는 축복이다. 벌써부터 게 껍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



정신우 셰프는 국내 1호 남성 푸드 스타일리스트, 오너 셰프 레스토랑 운영 등 화려한 이력을 지녔으며 현재 플레이트 키친 스튜디오의 대표로 요리 강사와 멘토로 활약 중이다. 2014년 홍선암을 선고받았으나 환자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 요리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 최근 저서로는 먹방 에세이 <먹으면서 먹는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 <365 샐러드> 등이 있다.

# 일상에 좋은 향기가 필요한 순간

최근 아로마테라피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아로마테라피란 식물의 꽃·꽃잎·열매·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향기 요법이다.  
많은 에센셜 오일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내게 맞는 에센셜 오일은 어떤 것일까.





은은한 향으로  
사랑받는  
라벤더



가장 무난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일이다. 특히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잘 맞아 피부 관리에 두루 쓴다. 독성이 없어 생리통, 두통, 근육통 등을 가라앉히는 진정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정 작용이 뛰어나서 불면증이나 긴장 완화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그 밖에 소염, 항박테리아 작용이 있어 여드름, 습진, 무좀 등 피부 질환은 물론 벌레에 물리거나 가려울 때 사용해도 좋다.

**주의 사항** 임신 초기에는 사용을 금한다. 저혈압인 사람이 사용하면 감각이 조금 둔화되고 졸릴 수 있다.



이국적인 향이  
마음을 끄는  
재스민



강한 꽃 향과 머스크 향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향으로, 깊고 달콤한 향을 맡으면 심신이 따뜻해지는 듯하다. 심신 안정 효과가 있어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할 때 사용하면 나쁜 감정을 해소하고, 활력을 준다.

이 밖에도 피부 탄력을 높여 피부 관리에 좋는데 특히 열이 많고 건조한 피부에 잘 맞는다.

**주의 사항** 임신 기간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극이 있으므로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로즈메리



코를 자극할 정도로 톡 쏘는 강한 향이 특징이다. 혈액순환 촉진, 살균·소독, 진통에 도움을 준다. 근육에 쌓인 젖산을 배출하기 때문에 운동 후 마사지할 때 사용하면 근육의 피로를 풀어준다. 어깨 결림, 요통, 근육통에 특히 유용하다. 예로부터 머리를 감을 때 이용할 정도로 모발 관리 효과도 좋다. 비듬,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며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주의 사항** 임신부와 혈압이 높은 사람,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름에  
꼭 필요한  
레몬그라스



신선한 레몬 향 비슷한 강한 향기가 느껴진다. 강한 자극으로 심신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작용을 한다. 스트레스를 없애고 기운을 북돋워 우울증, 불안증 해소에 좋다. 방충 효과가 뛰어나 특히 여름철에 유용한 에센셜 오일로, 스프레이용으로 만들거나 아로마 포트료 향기를 피우면 벌레를 쉽게 퇴치할 수 있다. 탈취 효과도 뛰어나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주의 사항**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페퍼민트



강한 박하 향이 기분을 상쾌하고 산뜻하게 만든다. 향기만 맡아도 몸과 마음을 자극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집중력 저하, 졸음, 두통, 메스꺼림에 빠른 효과를 보인다. 특히 소화기관을 강화하는 데 탁월해서 복부 마사지에 주로 쓴다. 이 밖에도 속쓰림, 설사, 구토, 소화불량, 가스로 인한 복부팽만, 멀미 등을 완화해주고 속이 더부룩할 때 명치에 바르면 소화를 촉진해 한결 편해진다.

**주의 사항** 농축액을 사용하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 임산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성을 위한  
자연의 향  
캐모마일



사과가 떠오르는 달콤한 향이 특징이다. 가장 오래된 의료용 식물로 알려져 있다. 월경 전 긴장과 불안을 덜어주고, 생리 불순, 생리통에도 효과가 탁월하며, 갱년기 증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중년 여성의 건강 유지에도 좋다. 진정·이완 작용이 뛰어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우울, 불면증, 히스테리 증세 완화에 도움을 준다.

**주의 사항** 호르몬 조절 작용이 있으므로 임신 4~5개월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국화과 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여성 한부모 취·창업 지원으로 탄생한  
빼어나게 향기로운 '수향공방'



사랑의열매와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부터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 강화와 자립 지원을 돕는 '뷰티플라이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7년 '뷰티플라이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희망을 꿈꾸는 우리는 Good Mom!'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혼모와 여성 한부모의 심리적·경제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은 여성 한부모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재설계한 후 일자리 모델링 교육인 맞춤형 잡코칭을 거쳐 마침내 바라던 결실을 맺었다. 2018년 8월 '빼어나게 향기롭다'는 뜻을 지닌 '수향공방'이 개소했다. 수향공방은 디퓨저, 캔들, 비누, 천연 화장품을 판매하고,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여성 한부모의 안정적인 경제 자립이 이루어지는 꿈의 공방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 아로마테라피 100% 즐기기

나에게 맞는 에센셜 오일을 찾았다면 이제 활용할 차례다. 아로마테라피 하면 아로마 마사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외에도 다양한 활용법이 있다.

## 확실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아로마 마사지

마사지를 하면 오일이 서서히 피부에 스며들고 피부 각 층을 통과한다. 몸에 흡수되는 데 20분 정도 소요된다. 피부에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확실히, 오랫동안 볼 수 있다. 마사지를 한 후에는 오일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샤워는 하루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다만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심할 때,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뇌전증·심장병 환자, 임산부 등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마사지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기는 일석삼조 효과 아로마 목욕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운 후 에센셜 오일을 4~5방울 떨어뜨려 물에 잘 섞는다. 이 물에 15~20분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는 것은 물론 코로 향을 들이마시고, 오일의 좋은 성분이 피부에 침투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신욕·좌욕·족욕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 오일을 손쉽게 즐기고 싶다면 흡입법

흡입법은 코로 향을 들이마셔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손쉽게 시도할 수 있다. 아로마테라피용 램프를 이용해 실내에 향기를 퍼뜨려도 되고 머그컵에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베개나 손수건에 오일을 떨어뜨려 머리맡에 두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오목한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붓고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5분간 얼굴에 수증기를 쐬는 방법도 좋다. ❀

### 아로마테라피를 즐기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주의사항

- 1 에센셜 오일은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한다.
- 2 새로운 에센셜 오일은 평소 사용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열거 희석해 목뒤나 팔 안쪽에 발라 테스트를 해본다.
- 3 오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순도 100%인지 확인해야 한다.
- 4 라임, 오렌지 스위트, 레몬, 그레이프프루트 오일은 피부에 바른 후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5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개봉 후 1년이 지난 제품은 무조건 버린다.
- 6 임산부나 고혈압·뇌전증 환자는 피해야 할 에센셜 오일을 확인한다.
- 7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이상 같은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2주에서 3개월마다 다른 오일로 바꾸거나 일주일 이상 휴지기를 갖는다.
- 8 오일 사용 시 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 9 아토피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는 에센셜 오일 사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중앙회



**EBS, '나눔0700' 성금 미혼부모 경제자립 교육에 기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명중)가 5월28일 경기도 EBS 본사에서 '나눔0700'성금 1억 2,000만원을 미혼부모 경제자립을 위한 교육 사업을 위해 써 달라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전달식에는 박치형 EBS 부사장, 김도경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EBS 나눔0700' <미혼부 노을이 아빠의 꿈>에 출연했던 미혼부 김지환씨, 탤런트 김승현,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서 진행하는 '양육미혼부모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지원된다. 'EBS 나눔0700'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EBS 방송되며, 우리 주변의 장애인, 난치성 환우,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한 이웃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ARS 모금을 진행한다. ARS 060-700-0700 한 통으로 3,000원을 기부할 수 있다. EBS는 2010년부터 사랑의열매와 함께 '나눔0700' 모금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로 약 75억 8,000만 원을 모금했으며, 70억 5,000만 원을 배분했다. 박치형 EBS 부사장은 "미혼부모가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데 혼자서 온전히 짊어져야 할 짐들이 여전히 무겁다"며 "이번 사업으로 미혼 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2019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의 날 행사 개최**

지난 5월 8일, 서울 사랑의열매에서는 '2019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신규 회원 소개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기부 동기를 나누고, 회원 가입 현황과 자원 사업 현황 보고, 분과별 활동 소개 시간을 가졌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안병근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의 어둡고 아픈 곳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는 클럽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따뜻한동행, 2019 드림하우스 지원 협약 체결**

지난 5월 10일,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24개소와 '2019 드림하우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따뜻한동행과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해에도 장애인 시설의 공간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합 모금을 진행했고, 한미글로벌 및 올리트라이프 등이 기금 조성에 참여해 3억 4,500만 원을 모금했다. 기금은 선정된 기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맞춤형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다. 올리트라이프 이병권 실장은 "장애인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 희망2019나눔캠페인 우수 기관 선정**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추진한 '희망 2019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나주 시민과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로 총 5억 8,000여 원을 모금했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희망2019나눔캠페인'의 우수 기관으로 나주시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해 소외된 이웃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메랄드 퀸, 빨래방 서비스 차량 구매비 기탁**

목포 지역 건설업체인 에메랄드 퀸(대표 곽사동)은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지원 차량 구매에 써달라며 2,000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 등 대형 빨래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다. 곽사동 대표는 "앞으로도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연합 모금 협약 체결**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회장 김두봉)가 사랑의열매와 경로당 어르신 '사랑나눔 행복기금'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합 모금은 전북 도내에 있는 6,500여 개의 경로당에 모금함을 설치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성금 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조성한 성금은 전액 전라북도 내 어려운 노인 세대와 경로당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착한일터 캠페인' 동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임직원의 월급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일터 캠페인'에 동참했다. 매달 한빛원자력본부 석기영 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들 급여의 일정액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예정이다. 석기영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착한일터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범죄 피해자 지원금 전달**

지난 4월 29일,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는 충북 사랑의열매에 범죄 피해자 지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뜻깊은 전달식은 남태화 충북지방경찰청장, 농협중앙회 태용문 충북영업본부장, 농협중앙회 김태종 충북지역본부장, 충북 사랑의열매 이명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탁된 성금은 충북지방경찰청의 추천에 따라 강력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성충문구,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충주 성충문구(대표 임동명)는 지난 5월 15일, 충북 사랑의열매에 여성 청소년 50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60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성충문구의 위생용품 지원은 2017년부터 충주 지역의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충북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이기도 한 임동명 대표는 "경제적 이유로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라고 취지를 전했다.



부산

**한국남부발전(주),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원**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신정식)은 5월 20일, 'KOSPO에너지드림카' (현대 아이오닉EV) 총 4억 3,500만 원 상당의 전기차 10대를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KOSPO에너지드림카'는 전기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남부발전(주)의 전기차 후원 프로젝트다. 기증받은 전기차는 부산 지역 복지시설 아홉 곳, 사회경제조직 한 곳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희망 2019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 개최**

지난 5월 14일,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나눔 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희망 2019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희망 2019나눔캠페인' 동안 기부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한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공로가 큰 단체와 개인 등을 포상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 올해는 지역사회 나눔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관을 발굴 포상하는 '사회공헌대상'을 신설했다. 첫 번째 수상자로 (주)부산은행이 선정됐다.

강원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설명회**

강원 사랑의열매는 지난 5월 2일과 3일에 2019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강원도 내 아동·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복권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과 체험 학습을 진행해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신학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6월 말에 배분한다.



**강원도교육청, 강원 산불 피해 성금 약 1억 3,400만 원 기탁**

지난 5월 2일, 강원도교육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과 학생, 교직원을 돕기 위해 성금 약 1억 3,4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내 600개 학교 교직원 7,500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였다. 민병희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 학생, 교직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도내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 피해 주민들과 아이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9 난치병 학생 돕기 나눔 캠페인 실시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 사랑의열매는 5월 한 달간 백혈병·심장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도내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2019 난치병 학생 돕기 나눔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7억 원으로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도교육위원회, 각급 학교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거기에 더불어 학부모와 교직원도 참여한다. 모금 방식은 사랑의온도탑 모형 종이 모금함에 성금을 모아 기부하게 된다.



### 착한가게, 3,000호점 돌파

경북 착한가게 3,000호점이 탄생했다. 평소 남다른 봉사와 선행을 실천해온 손병철 대표가 운영하는 '청하반점'이 그 주인공이다. 손병철 대표는 "기부라는 걸 해보니 내가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 크다. 착한가게 3,000호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북 사랑의열매는 착한가게 3,000호 돌파와 함께 연례 캠페인으로 진행하는 '착한가게 릴레이 캠페인'을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 2019 어린이날맞이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 개최

5월 4일에 개최한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광주 최대 규모의 나눔 걷기 행사이다. 삼성전자 광주사회공헌센터, 광주광역시, 광주 사랑의열매가 공동으로 주최해 나눔 걷기, 지역 예술인 공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은 시민이 기부한 만큼 기업이 기부하는 1+1의 행복나눔 매칭 그랜트 사업으로 모금한 8,418만 원은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광주 지역 아동 교육 사업에 쓸 예정이다.



### KB국민은행, 수영 대회 입장권 1억 2,000여만 원 기부

지난 5월 10일, KB국민은행은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돌봄 이웃 문화 관람 지원을 위한 수영 대회 입장권 1억 2,000여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 사랑의열매 한상원 회장, KB국민은행 김동현 기관영업본부 전무, 양영주 광주지역본부장, 김현홍 광주광역시청 출장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현 전무는 "돌봄 이웃들의 문화 관람 지원을 위해 수영 대회 입장권을 기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대구

**대구 사랑의열매, 저소득 가정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대구 사랑의열매는 5월 중순까지 대구광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의료 취약 계층 저소득 3,976세대에 1억여 원의 보건용(황사) 마스크를 지원한다. 최근 더욱 심해진 미세먼지와 황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사업으로, 각 가정당 25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 사랑의열매 이희정 사무처장은 “이번 지원이 의료 취약 저소득 가정이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명성, 6,500만 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 기탁**

(주)명성(대표이사 김명용)은 긴급용 LED 프레스 라이트 외 21종 물품 6,500만 원 상당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주)명성은 기업 부설 연구소를 통해 ISO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각종 특허와 디자인 인증 및 기술력을 확보한 실력 있는 회사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기업이다. 김명용 대표이사는 “소외된 이웃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우리가 전달한 물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착한일터 현판 및 강원 산불 성금 전달식**

지난 4월 25일, 한국기계연구원은 ‘착한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더불어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전 직원의 마음을 모은 성금 약 660만 원도 전달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11년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적립한 ‘나눔펀드’ 성금을 매년 기탁하고 있다. 기부금은 지금까지 6,000만 원 정도다.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1사 1촌 농촌 결연 마을 지원, 연탄 배달, 학생들을 위한 KIMM 사이언스 스쿨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사회복지관 협회,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5월 15일, 대전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 배영길)는 대전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대전 지역의 21개 종합사회복지관과 대전 사랑의열매가 다양한 여름나기 사업을 지원하는 총 1억 원 규모의 연합 모금 협약이다. 배영길 회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전 사랑의열매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성동 25명 주민, '천사계좌' 단체 가입**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 주민들이 '천사계좌'에 단체 가입을 했다. 학성동 그린리더협의회, 학성새벽시장 풍물드림팀,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5명이 그 주인공이다. 매월 최소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의 천사기금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게 된다. 후원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한다. 이정관 학성동장은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에 동참해준 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산 경남 새마을금고중앙회, 줌도리 지원금 기탁**

지난 5월 11일, 새마을금고의 창립 56년을 기념하며 '2019 울산 경남 새마을금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울산 경남 지역 102개 새마을금고와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모금한 지역사회 상생 발전과 복지 지원을 위한 MG새마을금고 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 지원금 1억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와 경남 사랑의열매에 각각 5,000만 원씩 전달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회적 역할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환원 사업 확대 등의 결의를 다졌다.

**충남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총회 개최**

충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4월 충남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성우총회장과 회원 등 30여 명이 모여 '2019년 충남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9년 충남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의 연간 활동 방향 공유 회원 간 친목 도모 등이 이루어졌다. 또 2018년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활동에 대한 공유와 보다 적극적인 나눔을 위한 논의를 통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봉사 활동 및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시에 공기청정기 152대 지원**

지난 4월 한국중부발전(주)(대표 박형구)는 충남 보령시청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박형구 사장, 박은희 충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복지시설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청정기 기탁식을 가졌다. 한국중부발전(주)이 기탁한 3억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52대는 보령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 78개소에 지원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앞으로도 보령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경남

**한국지엠한마음재단, 도내 미혼모 시설 지원**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은 지난 5월 15일, 미혼모 시설 지원 사업을 위한 500만 원의 성금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이승원 팀장, 경남 사랑의열매 유병설 사무처장, 생명터 노미진 원장, 엄마와 아기 이진이 원장 등이 참여했다. 전달 받은 성금은 창원시 내서읍에 자리한 '생명터'와 광도면에 있는 '엄마와 아기' 미혼모 시설 두 곳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초기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용품과 생필품 구매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기술처,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금 기탁**

지난 5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기술처는 함안군 칠서면 용동경로당에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현판식을 가졌다. 이는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경로당 2곳을 선정하여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기술처에서 1,000만원을 기탁하여 진행하였다. 단지기술처 임동희 처장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드릴 수 있어 기쁘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사랑의 성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권)은 지난 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361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제7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후원금을 접수받아 모금한 것이다. 모은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태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주)고릴라 스마트 웨이 김현정 대표, 나눔리더 64호 가입**

(주)고릴라 스마트 웨이 김현정 대표이사는 지난 5월 7일 제주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64호 나눔리더 인증패를 받고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나눔리더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을 밝히고자 하는 개인이 1년 이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거나 약정할 경우 나눔리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현정 대표는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효녀 가수 현숙, 이동 목욕 차량 전달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가수 현숙 씨가 1.5톤 이동 목욕 차량 1대를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현숙 씨는 2004년부터 매년 이동 목욕 차량을 전국에 기증해왔다. 이번 17번째 이동 목욕 차량은 산청노인복지센터에 전달해 지역 내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쓴다. 현숙 씨는 “이동 목욕 차량을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목욕 서비스를 받아 몸도 마음도 깨끗한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 포천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협약 체결

경기 북부 사랑의열매는 지난 5월 21일에 포천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천시 관내 기부 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읍면협의체 맞춤형 자원 개발과 기존 기부자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소외 계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 한화첨단소재, 어버이날맞이 효(孝)사랑 나눔잔치 진행

어버이날을 맞아 한화첨단소재는 인근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초대해 ‘효(孝)사랑 나눔잔치’ 행사를 진행했다. ‘효(孝)사랑 나눔잔치’는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 자연보호협회 부강면지회 회원들과 한화첨단소재 직원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한화첨단소재 김종남 세종사업장은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고 즐기셔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내년에 도 건강한 얼굴로 뵙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세종 맘카페, 3생활권 이웃에게 쌀 800kg 기탁

세종 맘카페(대표 정연숙)는 지난 5월 9일 세종 맘센터에서 세종시 3생활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은 쌀 800kg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 쌀은 지난 3월 23일 세종 맘센터 개소식에서 기부받은 것이다. 세종 맘카페는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 클럽 2호에 가입해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으며, 김장 나눔과 강원도 산물 피해 지역 기부 등의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연숙 대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인천

**인천 강화군, 강원도 산불 성금 2억 2,927만 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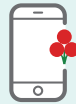
강화군은 지난 5월 3일에 강원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2억 2,927만 원을 기탁했다. 모은 성금은 강화군의 공무원을 포함해 각급 기관·단체와 기업 및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모금 운동을 전개한 결과다. 기탁받은 성금은 인천 사랑의열매를 통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등 피해 지역에 전달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내 일처럼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참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착한일터 업무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스승의날을 맞이해 참된 나눔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 교육'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착한일터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과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또한 나눔리더인 도성훈 교육감과 교직원들은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 약 1억 원을 모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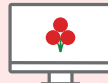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전남 83호



**김호제** (명)강진주류 대표이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 우리의 바램대로 이 세상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예스러운 실천이라 생각하는 문화가 이 사회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충남 87호



**이미정** (주)소부레이저 대표이사

“나눔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103호



**문기봉** 우리천막 대표

“어려웠던 시절 주위에서 받은 많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의 정을 느끼는 지역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주 104호



**황선태** 황보건설 대표이사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91호



**정길주** (주)제이앤제이 우드 대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광주 93호



**김상우** 상상토건(주) 대표이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대구 141호



**안상호** 안상호재활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아픈 신체뿐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구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나눔과  
배려로 가득한 따뜻한 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71호



**윤종설** 故 이인구 대전 60호 아내(계룡건설 명예회장)의 배우자  
“자녀들의 도움으로 아내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돼 더욱 뜻깊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특별하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산 166호



**이정동** (주)복원 대표이사  
“나태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웃들에게 더 베풀며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회사 설립 21주년을 기념해 아내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눌 때 오히려 행복이 배가되는 것을 느꼈으니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베풀며 살겠습니다.”

부산 168호



**서영환** 오오치과병원 대표원장  
“어린 시절 미술 준비물을 살 돈이 없어 미술 시간이 가장 싫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린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169호



**Hee Seongyeol** 부산 74호 아내 김무임(주)용성 대표이사)의 배우자  
“남편은 생전에 늘 적을 만들지 말자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고객과 협력업체 등에도  
늘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오늘 아내 소사이어티 가입식이 남편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 지난호 독자 의견



▶ 사방이 푸르름으로 물드는 싱그러운 이 계절에 〈사랑의열매〉를 만나 좋은 소식을 많이 접했어요. 특히 이번 호 표지 인물로 나온 배우 정보석 씨. 어려운 이웃을 가까이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까운 주변 사람부터 돌아보아겠다고 깨달은 참된 실천이 소중한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네요. 정보석 씨처럼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의 참여로 나눔 문화가 확산된다면 이 각박한 사회가 한층 더 여유롭고 풍요로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름처럼 멋진 주얼리 정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행보로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환하게 비춰주세요.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까운 주변부터 둘러보고 작은 정이라도 나누려고요. - 신신리 충북 보은군

▶ 〈사랑의열매〉 5월호의 '사랑의열매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요' 기사를 읽고 사랑의열매에서는 어린 이년을 맞아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사랑받으며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며, 따뜻한 손길로 마음을 보살펴주는 정서 지원 사업까지, 교육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금회의 활발한 활동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합니다! - 김태완 서울특별시 용산구

▶ 강원도 산불 관련 사랑의열매 지원 기사가 반가웠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사랑의열매가 긴급 지원 자금을 편성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개인과 기업의 성금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습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믿음직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보니 사랑의열매가 그동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펼친 다양한 지원 활동이 아마도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과 그 고통을 함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안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맑은 바 위에서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열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열매를 묵묵히 후원해주는 수많은 후원자들이 아마도 약자들의 수호천사,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망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 조영민 경기도 의정부시

##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담요

머그컵

에코백

머그컵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일러스트를 담았습니다. 총 네 가지 디자인으로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랑의열매〉를

###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 나눔과꿈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 2020년 나눔과꿈 사업신청 안내

### 사업소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공모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및 지원

### 신청기간

2019. 6. 10(월) 09:00 ~ 2019. 7. 26(금) 18:00까지 (7주간)

### 신청방법

나눔과꿈 홈페이지(www.sharinganddream.org) 접속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지원분야

분류①		분류②	
꿈	나눔	단기	장기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으로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1년	3년

### 사업기간 및 지원기준

구분	사업기간	지원기준
단기사업	2020. 1. 1 ~ 2020. 12. 31 (1년간)	기관당 1년간 1억원 이하
장기사업	2020. 1. 1 ~ 2022. 12. 31 (3년간)	기관당 3년간 5억원 이하

※ 사업신청 하한액 : 3,000만원

### 신청자격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사회적기업 포함)

### 사업설명회

» 세부일정

지역	일시	장소	분야
①서울	6. 10(월) 14시~16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공통
②서울	6. 11(화) 14시~16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글로벌
③광주	6. 12(수) 14시~16시	광주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공통
④서울	6. 14(금) 14시~16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사회적경제
⑤대전	6. 18(화) 14시~16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	공통
⑥서울	6. 19(수) 14시~16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	공통
⑦부산	6. 20(목) 14시~16시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공통
⑧경기(수원)	6. 21(금) 14시~16시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	공통

※ 글로벌 및 사회적경제 분야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이슈 소개

※ 수화통역 지원 : ①,③,⑤,⑦

접수방법 : 나눔과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선착순 마감)

### 문의

02-6262-3132, 3137, 3138

나눔과꿈 홈페이지 > 소통공간 > Q&A 공간

또는 실시간 상담이용 (10~17시 운영)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SAMSUNG** 과 **사랑의열매** 가 함께합니다.



충성! 사랑의열매가 국군장병을 응원합니다

